

3-1-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로마서 5:1-5

말씀 제목: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자의
평안한 삶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자들과 그들이 누리는 소망의 삶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롬 5:1-2)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모두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화평이나 나라 간의 화평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갖는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화평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주시는 화평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은 남겨 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롬 14:17)

그는 또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서도 증거했습니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롬
5:2)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오직
한 가지 소망 가운데 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롬 5:3-5)

그는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자들이 누리게 하는 또 다른 축복에 대하여서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험악함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니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롬 8:31-39)

그러나 세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줄 수 없는 화평을 거짓말로 꾸며내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유엔과 더불어 외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자, 즉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로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라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 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단 8:23-25)
아멘! 할렐루야!